



“중간기의 이야기들”

단 10: 10-21

2010. 2. 3 (수), 6 (토) 강사: 박원호 목사(주님의교회 담임)

1. 구약 : 레위기 제사와 십자가의 의미

제사(예배)는 이 땅에 악의 세력을 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심.

주님의 겹세마네 동산의 고통 : 유월절 어린양의 고통.

2. 중간기에 일어난 일들

Bruce Metzger, The New Testament its background, growth, and content

1) 이스라엘의 멸망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붕괴됨.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감.

50년 후,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Medes and Persia)에게

무너진 뒤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감.

2) 포로에서 귀환

537년에 도착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

515년에 완성됨. 445년에는 성벽이 느헤미야의 감독으로 재건됨.

3) 알렉산더의 등장

바사는 334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게 침략을 당함.

알렉산더는 시리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애굽까지 점령하여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함(331년).

인도까지 진격했다가 323년에 32살로 죽음.

4) 네 명의 장군들이 다스림.

알렉산더대왕이 죽은 후 시리아와 애굽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로 합병됨. (320년)

그 이후 122년 동안 애굽의 대제사장들이 다스림.

전체적으로 평화의 기간.

5) 셀루키드 왕조의 박해

198년에 시리아의 셀루키드 왕조의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강탈함.

셀루키드인들은 자신들을 헬레니즘의 사도라 부르면서

헬라 언어와 관습을 강요함.

이 때 유대 지도층들이 이 과정에 협조함.

많은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함.

보수적인 하시디안들은 이를 거부함.

6) 성전의 모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즉위하자, 성전을 불태우고 많은

백성들을 학살함.

하시디안들을 멸하기로 결심함. 성전 예배가 금지되고

이방신 제단들이 세워짐.

167년에 암돼지가 성전에서 바쳐짐.

이 때 폭동이 일어남. 맛디아와 그의 다섯 아들이 주동이 되어

게릴라 전술로 저항함. 아버지가 죽고 셋째 아들이 계승함.

(마카비, Maccabeus) 성전이 더럽혀진 지 3년 뒤 164년에 성전이 회복됨. 이를 수전절이라 부름. (하누카)

이들의 저항이 계속되었으며, 142년에는 정치적 독립을 쟁취함. 80년간 지속됨. (586년에 나라를 잃어버린 뒤 1948년 독립할 때 까지 유일한 독립 기간)

이 때 나라가 정치적으로 둘로 나뉘어짐. 한편으로는 나라의 정치적 독립까지 지지하는 사람들(훗날 사두개인들)과 종교적인 자유 만을 원했던 바리새인들로 나뉘어짐.

이 둘 사이의 갈등으로 나라가 약해지자, 로마의 침략으로 쉽게 무너짐. 63년에 예루살렘이 폼페이에 의해 점령당함.

7) 로마의 등장

로마가 점령하면서, 안토니와 옥타비아누스가 유대인들을 이두매사람 헤롯의 통치하에 맡김.

이 때부터 헤롯 왕조가 시작됨.

3. 신약의 종교적 배경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약 150만 내지 200만 인구가 살고 있었음. 이 중에 50내지 60만이 유대인들.

이들 대부분은 남쪽 유대 지방에 거주함.

북쪽 갈릴리는 비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했으며 따라서 이 지역을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의 갈릴리’ (사 9:1, 마 4:15)라고 부름.

팔레스틴에는 세 개의 종교 그룹: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약 6000명 정도가 바리새인.

그 외에 헤롯당과 셀롯당이 있었음.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하시디안(경건한 자들)의 후예들. 하나님의 예정과(사두개인은 거부), 영혼 불멸을 믿음.

악마와 천사에 대한 사상이 많이 발달(사두개인들은 거부).

히브리 성경과 구전을 중시함(사두개인은 오직 히브리 성경만)

2) 에세네파

4000명정도. 금욕생활. 결혼을 금했으며 하나님의 예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음.

3) 셀롯당

로마에 반역함(행 5: 37). 신앙적으로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짐. 단검으로 무장했기에 암살자라는 별명을 가짐.

(행 21: 38). 이들은 마사다에서 최후를 맞음. 주님의 제자 시몬이 셀롯당.

4. 당시의 철학

1) 플라톤 철학

플라톤(427-347). 참된 실체는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ideal) 또는 형상(form)안에 있음. 영혼은 변하는 것(becoming)을 넘어선 더 높은 세계에서 행복을 얻음. 몸은 감옥이며 영혼의 집은 감각을 넘어선 세상에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서 선, 진리, 미를 추구해야 함.

2) 에피큐러스 학파

감각이 진리의 표준임. 사람의 지혜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있음.

3) 스토아 학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강조. 전체 물질의 질서를 주관하는 것은 거룩한 이상(Divine Reason)이며 인간의 의무는 이 이성 (또는 자연질서)에 따라 사는 것.

5. 복음서의 상호 의존

4 복음서는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들이 존재함.

- 1) 마가와 누가는 사건의 순서가 다르지만 마태는 마가와 일치함.
- 2) 마가의 언어 스타일은 마태보다 덜 정제됨.
- 3) 마가에서 오해될 수 있는 구절들은 마태와 누가에서 생략됨.

마가

Q

마태

누가

마태 : 이는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함. 예수는 그들의 메시아.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 많은 내용들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

마가 : 이방인들을 위해, 특히 로마인들을 위해 기록함.
예수의 인성에 많은 강조가 있음.
(4: 38 피곤하심, 13: 31 아버지의 때를 모르심)

누가 : 교양있는 헬라인들을 상대로 기록함. 데오빌로 각하..
예수는 모든 족속과 모든 계층에 관심을 가지심.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심.

요한 : 스타일과 내용, 신학적 강조가 세 복음과 다름.
사랑, 진리, 빛, 죄, 심판, 생명과 같은 단어들이 반복됨.
세 복음서와는 주님의 연대기에서 큰 차이가 있음.

6. 주님의 중심되는 가르침

1) 하나님 : 아바 아버지

2) 하나님의 나라

3) 주님 자신에 대한 가르침

가. 메시아

나. 인자 (Son of Man)

다.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4) 인간의 의무와 관계

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이웃과의 관계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에 대한 보상